

‘문화는 구호가 아닌 현실의 힘’

‘96 미국 ABA도서전을 돌아보고

박남현

(주) 고려원 편집국 국제문화부장

‘96 미국 국제도서전(ABA Convention & Trade Exhibit)이 지난 6월 15일부터 3일간 미국 제2의 도시 시카고 맥코믹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격렬한 전투였다. 비록 거대언론 CNN이 외면하고, 그곳에서 열린 시카고와 시애틀의 NBA 결승전 때문에 자국민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모여든 2천5백개의 출판 관련사와 20여만명의 참가객들의 만남은 1947년부터 본격적인 도서전을 개최해온 ABA 도서전 사상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번째로 규모 큰 국제전 실감

도서전을 주최하는 쪽이 미국 서적상연합회(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이라 타국가의 국제도서전과는 성격이 구별된다. 행사의 구석구석에서 서점회원들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 ABA 부스를 별도로 마련, 서점(인)을 위한 새로운 건강보험을 마련했고, 서적판매업자들의 자유로운 의견발표를 위해 결성된 단체인 ABFFE를 통해 전시장 내에 여러 기념품들을 판매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주최측에서 설정한 ‘저자 서명구역’이란 곳도 눈에 띄었는데,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명받는 책 한 권당 1달러 이상의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때 기부된 돈은 시카고와 ABFFE를 위해 쓰여진다. 행사가 끝난 뒤 남은 책들은 미국 전지역 독서모임을 위한 ‘더 보이즈 앤드 걸스 클럽’과 시카고 시 두 단체에 기증된다.

이와 같이 미국 국제도서전은 집안잔치의 성격이 강한 한편, 참가 출판사들의 치열한 판촉전과 대형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와 각국에서 모여든 에이전트들의 저작권 상담도 30분 간격으로 이어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제전임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개막식은 물론 이렇다 할 큰 행사나 특별한 주제 없이 밋밋하게 진행됐다. 신작을 발표하고 외국에 저작권을 판매하는 데 행사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96 미국 ABA도서전 전경. 모두 2천5백개 출판사, 20여만명이 참가했다.

는 대다수 출판인들의 의견을 주최측에서 수용한 때문이다.

한편 이번 미국 국제도서전의 치명적 상처는 작년에도 불참한 랜덤하우스, 펄컨, 세인트마틴스 등 대형 출판사의 계속된 참가거부인데, 주최측이 시카고 시와 향후 50년간 도서전을 시카고에서 열기로 계약한 것도 그 배경의 하나로 추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힘을 과시한 출판사는 출입구 중앙에 부스를 마련한 워너북스를 비롯, 하퍼콜린스, 할리퀸, 앤드류스 앤드 맥밀, 토마스 넬슨 등과 영국의 DK, 독일의 타센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출판사의 상담석은 3일 동안 늘 붐볐고, 서점관계자들에 대한 판촉전도 치열했는데 주로 광목 같은 것으로 만든 가방과 간혹 시계를 기습적으로 나눠주곤 했다.

대형 출판사를 비롯, 에이전시에서 마련한 96~97 신작 리스트는 대략 30~50종 정도. 그 중 몇몇 출판사는 가제본을 만들어 돌리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전자출판 확대 두드러져

출판사들의 부스는 독립부스를 신청한 몇

몇 출판사를 제외하곤 좌측 뒤쪽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었는데, 독일어를 함께 사용하는 독일과 스위스·오스트리아가 함께 디스플레이를 해 우애를 과시했다. 단독부스를 설치한 외국의 출판사로서는 단연 영국의 DK가 화려함을 자랑했는데, DK 특유의 비주얼한 분위기를 한껏 살리면서 한쪽으로 멀티미디어 출판물을 집중 홍보했다. 독일의 타센북출판사는 부스 전체를 노란색으로 꾸며놓고 화집과 에로틱 관련서적을 집중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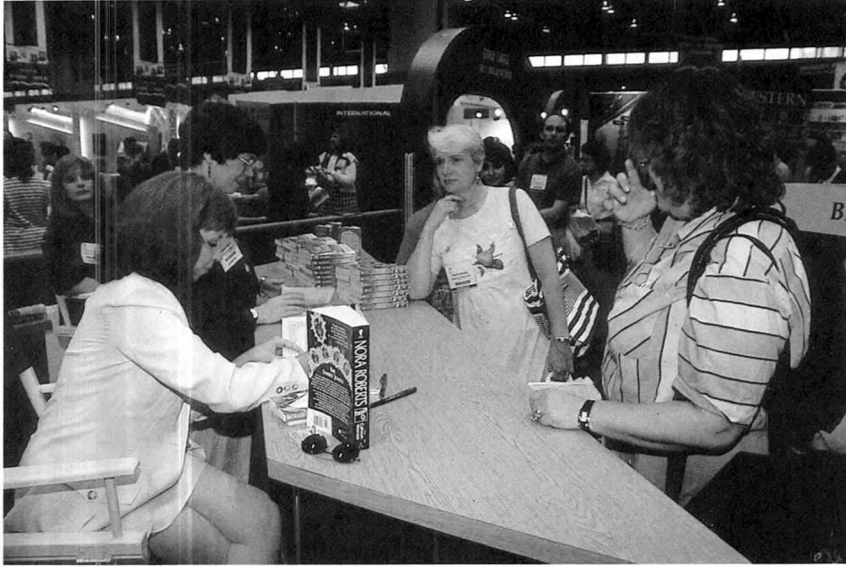
반면 최근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로 다시 한번 지구촌에 화제가 된 한국과 일본이 바로 이 나라인가 할 정도로 두 나라의 부스는 침체된 분위기. 일본은 공식적인 국가관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나마 고단사만이 미국지사를 통해 외롭게 고군분투했을 뿐이다. 프랑스와 독일관이 어깨를 나란히 한 그 뒤편으로 마지막 분단국 한국관이 두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미국도서전을 통해 나타난 출판 흐름은 대략 두가지. CD롬 등 전자출판물의 확대와 경제·경영, 건강서적, 아동출판물 등의 세분화가 그것이다.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두드러지게 약진하고 있는 분야. 필자가 주로 첫날 입수한 CD롬 샘플디스크는 대략 10여 종.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1천장 안팎의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 1시간 안팎의 비디오 장면, 1~3시간 정도의 나레이터 설명이 종합 연출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굳이 성인과 아동, 교육용과 오락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흥미롭게 만들어져 있었다.

한국에서 11시간을 날아가 둘러본 96 미국 국제도서전은, 언젠가 한 일간지의 출판담당 기자가 국제도서전을 둘러보고 돌아와 외친 바 그대로 ‘문화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힘’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가! 서울도서전이 국제전으로 바뀌면서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말 가운데 국제전에 걸맞는 행사를 치러내지 못할 바에는 ‘국제’라는 말을 빼자는 것이었다.

이번 미국 국제도서전에 참가한 한국의 출판관계자 수는 대략 200여명. 과연 우리는 국제전에 걸맞는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는가. 반복하지만 ‘문화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힘’이다. ❖



작가 사인회, 우리의 경우처럼 길게 줄을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별도의 전시관에서 운영된 예술관.



왼쪽부터 영국의 돌링 킨더슬리(DK)사, 미국의 랜드 맥널리스사, 독일의 타센사. 특히 타센 출판사는 부스 전체를 노란색으로 꾸며 눈길을 끌었다.



아동관, 프랑크푸르트·볼로냐 도서전에 비해 소규모로 참가했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로 지구촌에 화제가 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부스의 분위기는 침체된 듯했다.